

파생상품 가격 결정 원리의 이해

- 무차익거래(No Arbitrage) 논리를 통한 선도·옵션 가격 결정

- 목 차 -

1. No-Arbitrage 가정

2. Forward 가격 결정

3. Option 가격 결정

■ No-Arbitrage (무차익거래) 가정

1. Arbitrage (차익거래)

-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을 때, 이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사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거래 행위
-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포지션을 취하면서 위험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투자전략
- “Free Lunch”
- 수학적 정의: ① $V(0) \leq 0$ and $\Pr[V(T) \geq 0] = 1$ and $\Pr[V(T) > 0] > 0$ 또는 ② $V(0) < 0$ and $\Pr[V(T) \geq 0] = 1$ 를 만족하는 투자기회
 - $V(t)$: 어떤 투자기회(포트폴리오 or 전략)의 t 시점 가치
 - ①: 현재 시점 가치가 Non-positive인 투자가 미래시점의 모든 경제상태에서 Non-negative인 수익을 발생시키고, 또한 (+)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상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투자기회
 - ②: 현재 시점 가치가 (-)인 투자가 미래시점의 모든 경제상태에서 Non-negative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기회

1. No-Arbitrage (무차익거래) 가정

파생상품 가격 결정 원리의 이해

■ No-Arbitrage (무차익거래) 가정

2. No-Arbitrage (무차익거래) 가정

- “금융시장에 Arbitrage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.”
- “No Free Lunch”
-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 보다 작아야 함.
 - (예) 1년 만기 국채 수익률 <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통주에 대한 연 기대 수익률
- 위험이 작은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위험이 큰 자산의 기대수익률 보다 작아야 함.
 - (예) 만기가 동일한 무이표 국채(A)와 무이표 회사채(B)가 있을 때, $P_A > P_B$
- “Law of One Price (일물 일가의 법칙)”
- No Arbitrage Price \equiv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파생상품 가격

3. 파생상품 가격 결정 원리

- 경제학적 접근: 파생상품 가격 = No Arbitrage Price
- 수학적 접근: 파생상품 가격 =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기대값 = $E_0[PV(CF_t)]$ or $PV(E_0[CF_t])$

(※지금 부터는 시장에 이자율이 “무위험 이자율” 단 한 종류만 있다고 가정)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Q> Forward 계약 체결 시 **얼마에** 사거나 팔기로 약속해야 공정한가?

A> **Arbitrage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에** 사거나 팔기로 하면 된다.

→ “Cost of Carry Model (보유비용 모형)”

1. 주식 Forward

- 개념적인 도출 (S_t = t시점 주가, F_t = t시점 Fwd 가격, T = Fwd 만기)

(1) 주식 매수자금(S_0 원) 보유 가정 시

(2) 주식 매수자금 미 보유 가정 시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1. 주식 Forward (계속)

- (Case 1) 기초자산 주식의 배당이 없는 경우 (r = 연속복리 무위험 이자율): $F_0(T) = S_0 \cdot e^{r \cdot T}$
- (Case 2) 기초자산 주식의 현금 배당금 = D (지급시점 = T_D)인 경우: $F_0(T) = (S_0 - I) \cdot e^{r \cdot T}$ (단, $I = D \cdot e^{-r \cdot T_D}$)
- (Case 3) 기초자산 주식의 연 배당률(연속복리) = d : $F_0(T) = S_0 \cdot e^{(r-d) \cdot T}$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1. 주식 Forward (계속)

- 정리하면,
 - $F_0 = S_0 e^{(r-d)T} = (S_0 - I)e^{rT}$ (※ I = PV of Incomes from the underlying stock)
- (예) 현재 시장에서 $S_0=50,000$ 원, 3개월 단리금리=2% 라고 한다. ①배당이 없는 경우 및 ② $q=1\%$, ③ $D=300$ 원($T_D=1$ 개월 후) 세 경우에 대하여, 만기 3개월 선도가격을 각각 계산하시오. (※일수 고려X)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2. FX Forward

• FX 사전 지식

① 포지션 (Posi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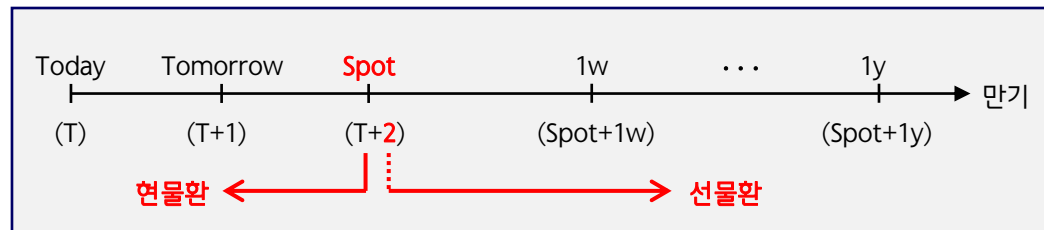
- 롱(Long) 포지션 : 외화자산 > 외화부채
- 숏(Short) 포지션 : 외화자산 < 외화부채
- 스퀘어(Square) 포지션 : 외화자산 = 외화부채

<환율 변동에 따른 포지션별 손익 방향>

환율 변동 \ 포지션	Long	Short	Square
환율 상승	이익	손실	-
환율 하락	손실	이익	-

② 현물환 (Spot): 계약(Fixing)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화를 교환(Settlement)

- Zero Spot: 오늘(Today) Settlement 되는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



③ 선물환 (Forward): 계약(Fixing)일로 부터 2영업일 초과 후 통화를 교환(Settlement)

→ 은행간 시장(장외) 거래 만기: 1w, 1m, 2m, 3m, 6m 1y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2. FX Forward (계속)

- 만기 T인 USD/KRW 선물환의 “이론” 선물환율

$$- F^*(T) = S_0 \times e^{[r^{\text{₩}}(T) - r^{\text{\$}}(T)] \times T} = S_0 \times \frac{DF^{\text{\$}}(T)}{DF^{\text{₩}}(T)} = S_0 \times \frac{[1 + R^{\text{₩}}(T) \times T]}{[1 + R^{\text{\$}}(T) \times T]} : \text{“Interest Rate Parity”}$$

- 단, S_0 는 Today 적용 환율(Zero Spot), 이자율은 모두 $[0, T]$ 적용 이자율이라고 가정.

- 만기 T인 USD/KRW 선물환의 “시장” 선물환율

- 스왑포인트(SP)_i $\equiv 100 \times [F(T_i) - \text{Spot}]$, $i = 1w, 1m, 2m, 3m, 6m, 1y$.

➔ 선물환율과 Spot의 차이를 1전 단위로 표시 ($\times 1\text{pt} = \text{₩}0.01/\text{\$}$)

- 선물환율은 일반적으로 스왑포인트의 형태로 고시(Quote) ➔ $F^{\text{mkt}}(T_i) = \text{Spot} + SP(T_i)/100$ if $i > t/n$

<스왑포인트 호가 예시 : 2015.05.06 마감 기준(Spot = 1,080.0)>

시장 정보	I	Today	o/n	t/n	1w	1m	2m	3m	6m	1y
	SP _i	-	3	3	22	95	190	290	510	790
계산	F _i	1,079.94	1,079.97	1,080.0	1,080.22	1,080.95	1,081.90	1,082.90	1,085.10	1,087.90

※o/n(Over Night), t/n(Tomorrow Next)

- $T_{o/n} = 1/365$, $T_{t/n} = 2/365$, $T_{1w} = 2/365 + 7/365$, $T_{1m} = 2/365 + 1/12$, ... (※ 휴일 무시). (예) $F(T_{1y}) = F(367/365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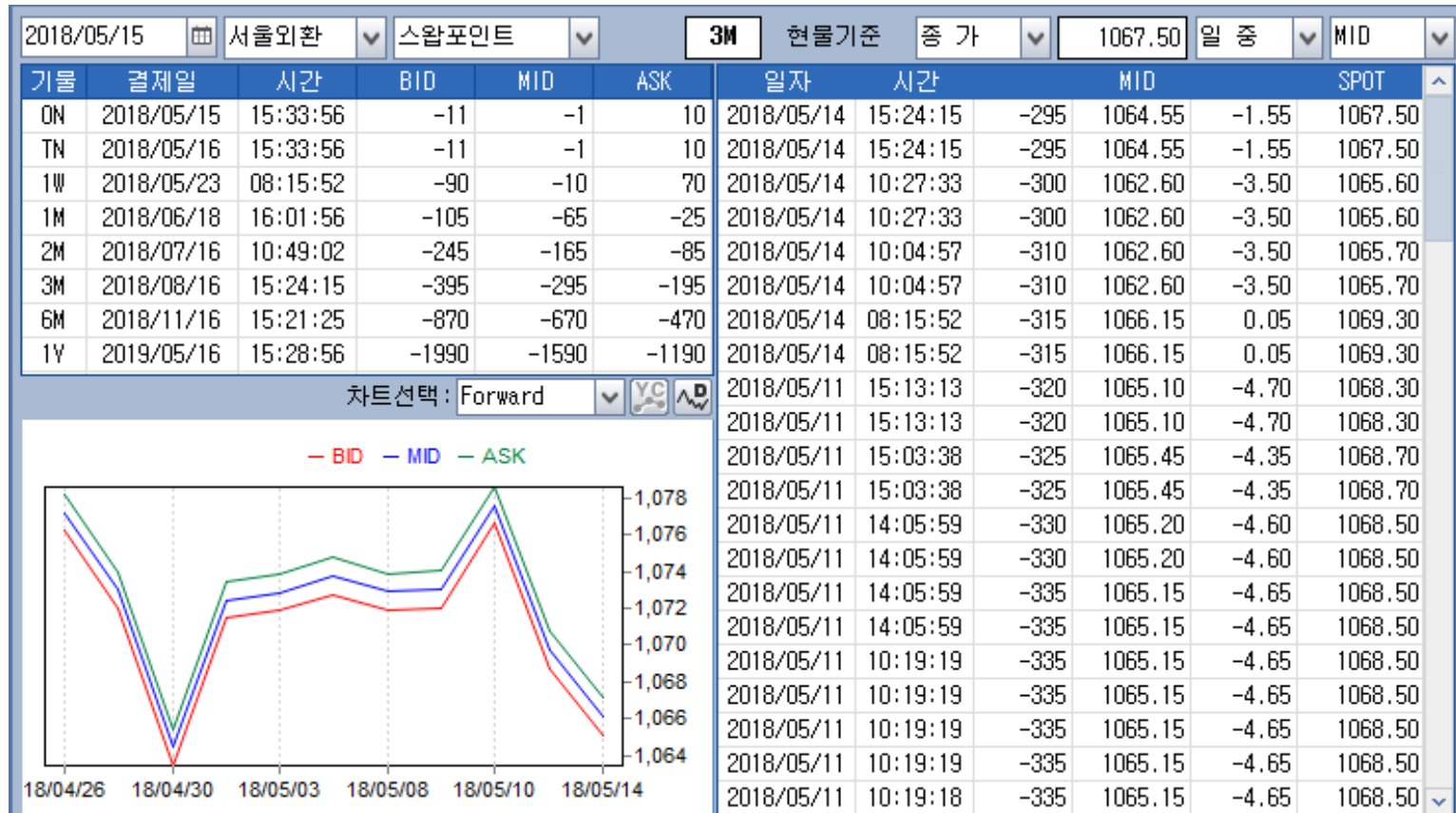
2. Forward 가격 결정

파생상품 가격 결정 원리의 이해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2. FX Forward (계속)

- 만기 T인 USD/KRW 선물환의 “시장” 선물환율 (계속) : 2018/05/15 기준. 장-단기 거래간 역전 관찰.

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2. FX Forward (계속)

- (예1) Spot=₩1,000/\$, 원화금리($R^{\text{₩}}$)=3%, 달러금리($R^{\text{\$}}$)=2% 가정. $F(T_{1m}) = ?$ (※휴일 무시)
- (예2) Page 7의 2015.05.06 자료 기준으로, 각 스왑포인트 고시만기에 대한 원화 연속복리 제로금리 $r^{\text{₩}}(T_i)$ 를 계산하시오 (단, 모든 만기에 대해 $r^{\text{\$}}(T_i) = 2\%$ 가정).

2. Forward 가격 결정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2. FX Forward (계속) : Hedging 과정을 통한 가격 도출

(질문) 국내 수출업체가 은행에 1Y 만기 선물환 \$1M 매도 요청. → 선물환율(F)을 \$1당 몇 원으로 결정해야 할까?

(답) “은행이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취한 선물환 매입 계약의 손익 = Hedge 거래의 손익” 이 되도록 F를 결정.

<은행의 USD/KRW 선물환 매입 및 “이론적” Hedge : 현물환율(S)=₩1,000/\$, 원화금리(R^W)=2%, 달러금리(R^S)=1% 가정>

- ① 업체로부터 USD/KRW 선물환 \$1M 매입 @F : USD 롱포지션 발생. → 환포지션 Hedge를 위해 USD/KRW 현물환 매도 필요.
- ② USD/KRW 현물환 매도에 필요한 USD 자금을 선물환 만기까지 차입 @ R^S =1%. → \$이자비용 발생.
- ③ USD/KRW 현물환 매도 @S=₩1,000/\$. : USD 지급 & KRW 수취.
- ④ 현물환 매도 결과 수취한 KRW 자금을 선물환 만기까지 예치 @ R^W =2%. → ₩이자수익 발생.

<거래 흐름(은행 입장)>

구분	거래
대고객 거래	① 선물환 매입
Hedge 거래	② USD 차입
	③ 현물환 매도
	④ KRW 예치

<현금흐름 ($T = 1Y$, $S = ₩1,000/\$$, $R^W = 2\%$, $R^S = 1\%$)>

Today	Tomorrow	Spot	1y(만기)	시간
				→
			+\$1M & -₩(1M×F)	
			-\$1M	
			-\$1M/(1.01) & +₩[1,000 × 1M/(1.01)]	
			-₩[1,000×1M/(1.01)] & +₩[1,000×1M/(1.01)]×(1.02)	

• F의 결정? → “만기(1y)시점 현금흐름 총합 = 0”이 되는 F를 찾는다.

$$\rightarrow \Sigma CF(1Y) = +\$1M - ₩(1M \times F) - \$1M + ₩[1,000 \times 1M / (1.01)] \times (1.02) = -₩(1M \times F) + ₩[1,000 \times 1M / (1.01)] \times (1.02) = 0.$$

$$\rightarrow \therefore F = 1,000 \times (1.02) / (1.01). \quad \text{--- (일반화) ---} \quad F = S \times \frac{(1 + R_{KRW} \times T)}{(1 + R_{USD} \times T)} = S \times \frac{DF_{USD}(T)}{DF_{KRW}(T)}. \quad (= S \times [1 + (R_{KRW} - R_{USD}) \times T].)$$

2. Forward 가격 결정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3. 이자율 선도 (FRA)

- No-Arbitrage FRA 가격 = Implied Forward Rate

- Implied Forward Rate: $F(0, T_1, T_2) = \frac{DF(T_1) - DF(T_2)}{DF(T_2) \cdot (T_2 - T_1)}$

4. Forward 계약의 가치

- Fwd Buy @ K: $V(t) = DF(T-t) \cdot [F_t(T) - K]$

- Fwd Sell @ K: $V(t) = DF(T-t) \cdot [K - F_t(T)]$



- (예) Page 10의 (예1)에서 Fwd Buy 계약 후 만기가 2주 남았을 때, $Spot = \text{₩}1,050/\text{\$}$, $R^{\text{₩}} = 3\%$, $R^{\text{\$}} = 2.5\%$ 가 되었다고 한다. 이 때, 기 체결한 Fwd Buy 계약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시오.

■ No-Arbitrage Pricing of Forward Contract

5. Forward를 이용한 Arbitrage

- Forward 시장가격 vs. Forward 이론가격(\leftrightarrow 복제를 통해 만들어낸 가격)
 - If 시장가격 < 이론가격 \rightarrow Buy Forward & Sell Spot.
 - If 시장가격 > 이론가격 \rightarrow Sell Forward & Buy Spot.
- (예) Page 10의 (예1)에서 1개월 만기 Fwd의 시장가격이 ₩1,100/\$이라고 할 때, Arbitrage 전략을 제시하고 그 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Fwd 만기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시오.

6. 이론과 현실의 차이

- 살 수 있는 가격(Ask) \neq 팔 수 있는 가격(Bid), 차입금리 \neq 투자(예치)금리
- 시장 참가자마다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같지 않음. \rightarrow 각 시장 참가자의 복제가격이 같지 않음.
- 각종 거래 제약, 규제... 등.

3. Option 가격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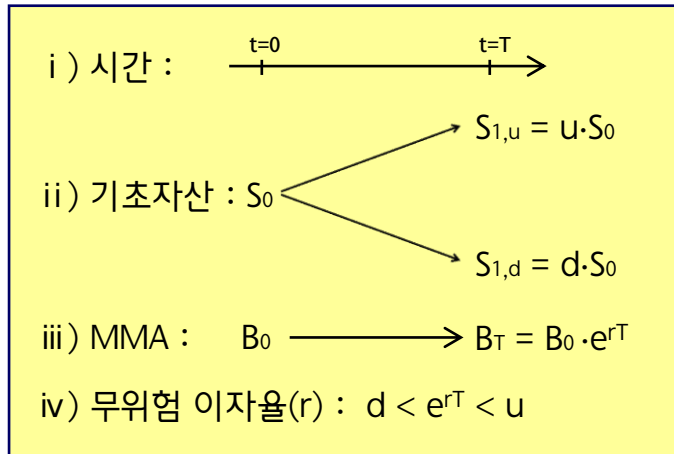
파생상품 가격 결정 원리의 이해

■ Binomial Tree Mod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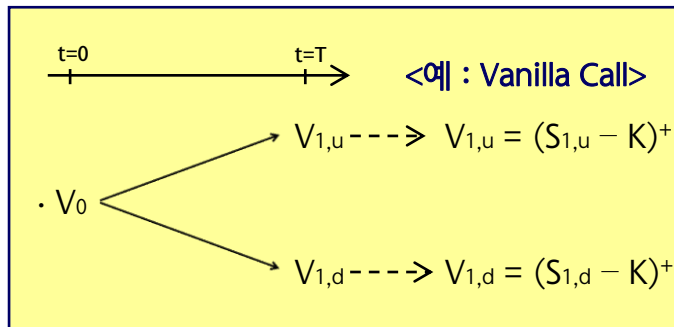
1. 단일기간 이항 모형(Single-Period Binomial Tree Model)

($P_0=V_0, P_{1,u}=V_{1,u}, P_{1,d}=V_{1,d}$)

(1) 가정(1기간 모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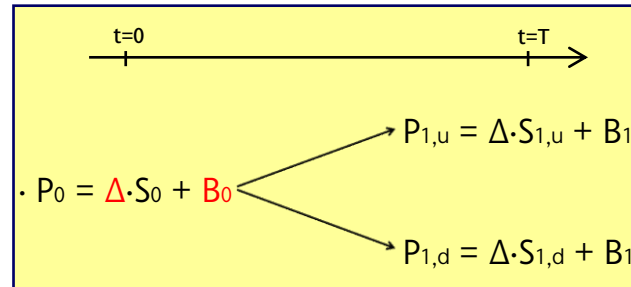


(2) 목적 : 파생상품 현재가치(V_0) 계산



(3) 방법 : S(매입/매도) 및 B(예치/차입)를 통해 V의 Payoff를 복제

• 복제 포트폴리오(P) : $P_t = \Delta \times S_t + B_t$



→ At $t=T$,

$$\begin{cases} P_{1,u} = V_{1,u} \\ P_{1,d} = V_{1,d} \end{cases} \text{ or}$$

$$\begin{cases} \Delta \cdot S_{1,u} + B_1 = V_{1,u} \\ \Delta \cdot S_{1,d} + B_1 = V_{1,d} \end{cases}$$

$$\therefore \Delta = \frac{V_{1,u} - V_{1,d}}{S_{1,u} - S_{1,d}}, \quad B_0 = \frac{e^{-rT} \cdot (V_{1,d} \cdot S_{1,u} - V_{1,u} \cdot S_{1,d})}{(S_{1,u} - S_{1,d})}$$

$$\begin{aligned} \rightarrow V_0 &= \Delta \cdot S_0 + B_0 = \left(\frac{V_{1,u} - V_{1,d}}{S_{1,u} - S_{1,d}} \right) \cdot S_0 + \frac{e^{-rT} \cdot (V_{1,d} \cdot S_{1,u} - V_{1,u} \cdot S_{1,d})}{(S_{1,u} - S_{1,d})} \\ &= \frac{V_{1,u} - V_{1,d}}{u - d} + \frac{e^{-rT} \cdot (V_{1,d} \cdot u - V_{1,u} \cdot d)}{u - d} = e^{-rT} \cdot \{q \cdot V_{1,u} + (1-q) \cdot V_{1,d}\} \\ &= e^{-rT} \cdot \tilde{E}_0^Q[V_1], \text{ where } q = \frac{e^{-rT} - d}{u - d} \end{aligned}$$

→ q : 확률로 해석 가능. → “**위험중립 확률**”

■ Binomial Tree Model

2. 위험중립 확률(Risk-Neutral Probability or Risk-Neutral Measure)의 이해

- (1) 정의 : 위험 선호도가 중립적인 투자자의 기대에 내재된 자산가격 미래 움직임에 대한 확률적 가정
(=이익/손실 가능성에 무관심한)
- (2) 용도 : 파생상품의 가치(가격)는 만기 Payoff의 위험중립 기대값을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할 수 있음.
- (3) 위험중립 가격계산 공식(Risk-Neutral Pricing Formula) : $V(t) = \tilde{E}_t^Q [e^{-\int_t^T r_u du} \cdot V(T)]$.
- ① 파생상품의 현재가치 = 위험중립 세상에서 계산된 파생상품 만기 Payoff 기대값의 현재가치.
- [Note] 파생상품의 이론가치(가격)은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 or 하락할 실제(??)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.
→ (Why?) 파생상품의 이론가치 = 파생상품의 Payoff를 “복제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현재가치.
- ② 파생상품 이론가치 계산 시 사용하는 결과적인 Tool로서 이해할 것.

[참고] 측도 변환(Change of Measure)

- ① “측도(Measure)” : 확률의 상위 개념을 의미하는 수학 용어.
- ② 측도 변환 : 기대값 계산을 보다 쉽게 수행하기 위해, 기대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과 확률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수학적 정리. (예) $6 = \sum(P_i \times X_i) = 0.6 \times (5) + 0.4 \times (7.5) = 0.2 \times (10) + 0.8 \times (0.5) = \dots$.

$$V(t) = \tilde{E}_t^B \left[B_t \cdot \frac{V(T)}{B_T} \right] = \tilde{E}_t^U \left[U_t \cdot \frac{V(T)}{U_T} \right]. \quad (\text{※ } B, U : \text{기준재(Numeraire)})$$

■ Binomial Tree Model

3. 다기간 이항 모형(Multi-Period Binomial Tree Model)

- “Option Pricing – A Simplified Approach” by John C.Cox, Stephen A.Ross, and Mark Rubinstein,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, 1979.

- 2기간 모형

- 3기간 모형

- N기간 모형

$$- C_0 = e^{-rT} \sum_{j=1}^N C_j q^j (1-q)^{N-j} V_{N,u^j d^{N-j}}, \text{ where } S_{N,j} = u^j d^{N-j} S_0.$$

■ Binomial Tree Model

3. 다기간 이항 모형(Multi-Period Binomial Tree Model, 계속)

- (예1) $S_0=20$, $u=1.1$, $d=0.9$, $r=0.12$ 이라고 가정하자. $K=21$ 이고 $T=0.25$ 인 European Call Option의 현재가격을 1기간 Binomial Tree Model을 통해 계산하시오. (답: 0.633)
- (예2) $S_0=50$, $u=1.2$, $d=0.8$, $r=0.05$ 이라고 가정하자. $K=52$ 이고 $T=2$ 인 European Put Option의 현재가격을 2기간 Binomial Tree Model을 통해 계산하시오. (답: 4.1923)